



특별한 여행을 원한다면

<위대한 가이드>

김재희 아리랑국제방송 사원



<위대한 가이드 - 영국 편>



<위대한 가이드 - 인도 편>

현지인이 추천해 주는 여행지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2024년에도 TV 방송에는 어김없이 여행을 주제로 한 예능 프로그램이 많이 제작되었습니다. 해외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음악을 주제로 여행하거나, 여행 전문 크리에이터들이 주사위를 굴려 계획 없이 떠나 직접 부딪히며 다니기도 합니다.

많은 여행 관련 프로그램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았던 프로그램은 <위대한 가이드>입니다. 특히 아리랑 라디오 고정 프로그램인 #Daily K의 진행자 피터 빈트가 출연한 <위대한 가이드 - 영국 편>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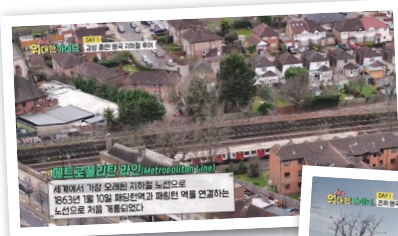
위대한 가이드는 한국에 거주 중인 외국인이 가이드가 되어, 출연진들과 함께 모국을 방문하여 현지인만 아는 여행 스팟을 소개해주는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Day 1

인천에서 영국 히스로 공항 도착 후, 히스로 공항에서 약 40분 거리에 위치한 런던 옆 동네 '해로우'로 향하게 됩니다. 해로우는 영국 런던 북서부 외곽에 자리 잡은 상업 도시로 원래는 작은 농장 마을이었으나 '해로우 온 더 힐'역 건설 이후 주택 붐이 일어나게 됩니다. 해로우를 첫 여행지로 선택한 이유는 피터의 고향이고 런던으로의 이동이 쉽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지하철 노선인 메트로폴리탄 라인을 타고 노스우드힐역에서 베이커 스트리트역에서 환승 후, 워털루역으로 향하게 됩니다. 워털루역에서 내리게 되면 런던의 대표 관광 스팟인 '런던 아이'를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이후, 런던 '그래피티 터널'에 도착하게 됩니다. 스트리트 아티스트들의 다양한 그래피티를



엿볼 수 있는 터널입니다. 신기했던 점은 낙서가 계속 바뀌어서 터널의 그림들이 매일 다르다고 합니다. 런던의 야경을 즐기고 싶다면, 런던 아이, 빅벤, 세인트 폴 대성당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워털루 브릿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마지막은 1760년에 개점한 세계에서 제일 크고 제일 오래된 햄리스 장난감 가게에 방문하게 됩니다. 지하 1층에는 해리포터 관련 굿즈들이 전시되어 있어 해리포터 팬이라면 꼭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Day 2

2일 차에는 영국의 9~10부 리그 구단과 함께 축구 경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후, 런던의 마지막 코스인 빈티지 쇼핑의 성지 '브릭 레인 마켓'으로 향하게 됩니다. 브릭 레인 마켓은 17세기 외국 이주민들에 의해 형성된 길거리 마켓으로 저렴한 빈티지 제품들을 만나 볼 수 있습니다. 특히 1855년에 오픈한 영국 최초의 베이글 가게인 'Beigel Shop'에 가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피클과 머스터드를 넣은 유대인식 베이글을 맛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마지막은 템스강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인 '타워브리지'에서의 야경으로 여행을 마무리합니다.



TOWER
Bridge



Day 3

3일 차는 런던에서 벗어나서 자갈밭 해변으로 유명한 휴양지 '브라이트 비치'로 가게 됩니다. 브라이트 비치의 랜드마크인 브라이트 피어에서 영국 오락을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장어를 썰어 삶은 후 젤리처럼 굳힌 영국 향토 음식인 장어 젤리도 맛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램블링을 체험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램블링은 영국인이 즐기는 취미 활동으로 특정 지형지물을 찾아가며 다른 이가 만든 길을 찾아가는 활동입니다. 1차 산업혁명으로 오염된 도시에서 살던 시민들이 쉬는 날 오염된 도시를 벗어나 산책을 하게 램블링의 유래라고 합니다. 이러한 램블링은 지역별로 다양한 코스가 있어, 쉽고 편히 즐길 수 있는 취미 활동입니다. 현지인들이 작성한 길 찾기 안내서를 활용하여 다양한 램블링 코스를 경험해 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브라이트튼에서 램블링이 끝난 이후, 다양한 영국의 펍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펍 크롤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THE Prince Albert' 펍은 외관에 유명 인사들의 초상화와 벅크시의 유명한 작품까지 감상할 수 있는 1848년에 지은 타운하우스를 1860년 펍으로 개조한 곳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펍을 방문하면서 펍 크롤링 투어를 마무리로 3일 차를 끝내게 됩니다.



Day 4

4일 차는 브라이트튼에서 북쪽으로 3시간 거리인 '스트랫퍼드 어폰 에이번'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름이 다소 생소한 곳이지만 이곳은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탄생지로 그와 연관된 역사적인 유물들을 간직한 도시입니다. 이곳에서는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생가를 직접 볼 수 있습니다. 'The DODUGH HOUSE'에서 직접 베이킹 클래스를 통해 영국 정통 스킨을 만드는 체험을 해 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은 '고스트 워크' 코스입니다. 무섭고 기이한 이야기를 들으며 미스터리한 현장 곳곳을 다녀보는 체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체험이 끝난 이후 사진을 찍거나 유니크한 소품들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Day 5

여행 마지막 날인 5일 차에는 '블레넘 궁전'에 방문하게 됩니다. 땅 크기만 1,400만 평인 이 궁전은 200개 이상의 방을 가진 윈스턴 처칠의 출생지라고 합니다. 내부에서 처칠이 탄생한 방과 그림들도 구경할 수 있습니다. 또 블레넘 궁전 한쪽에 위치한 식당에서 애프터눈티를 체험할 수 있는데, 영국의 홍차 문화를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궁전을 보고 난 이후에는, 골프의 종주국 영국에서 '풋 골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풋 골프는 골프공 대신 축구공, 골프채 대신 다리를 활용하는 영국식 축구와 골프가 결합된 스포츠로 영국에서만 즐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5일 차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위대한 가이드-영국 편> 여행이 끝나게 됩니다.



BLENHEIM Palace

소개를 마치며

해외여행을 다니다 보면 같은 여행지라도 누구랑. 언제. 어떤 목적으로 가느냐에 따라 느낌이 많이 달라집니다. 같은 여행지라도 관광지를 목적으로 갈 수도, 현지인들이 가는 곳을 직접 체험하는 것을 목표로 할 수도 있습니다.



<위대한 가이드> 방송을 통해, 한 번 가본 여행지라도 현지인이 추천해 주는 여행 스팟을 다시 한번 더 가보신다면 또 다른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여행을 가게 된다면 한 번쯤은 현지인이 추천하는 코스로 가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여기선 나만 밀어
위대한 가이드